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국외 연수 결과 보고

【2017. 12. 24.(일) ~ 12. 31.(일)】



- 차 례 -

I. 연수 개요	1
II. 주요 일정	2
III. 연수자 명단	3
IV. 국가별 특징	4
V. 주요연수 내용	9
1. 이탈리아	9
2. 스위스	15
VI. 연수 후기	17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선진 의회와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유럽도시 지방의회 벤치마킹 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함.

I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7. 12. 24.(일) ~ 12. 31.(일), 6박 8일

■ 연수지역 : 이탈리아, 스위스

■ 연수인원 : 24명

- 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11명
 -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시·도의회 수석전문위원 등 수행원 13명

■ 연수과제

- 이탈리아 한인회 방문 및 평창올림픽 거리 홍보
- 이탈리아 및 스위스 지방의회의 운영실태 비교 시찰
- 도시문화 및 안전관리, 세계문화유산 보존 실태 시찰 등

■ 주요 방문기관

- 이탈리아(로마) 한인회
- 이탈리아(로마, 베네치아) 및 스위스(취리히) 청사
- 도시명소 및 세계문화유산(콜로세움, 피사 등), 자연 관광자원(알프스 등)

II 주 요 일 정

일차	지역	교통	시간	주요 일정	비고
12.24(일) 1일차	인 천 로 마	KE 931	18:00 22:35 23:00	인천 출발(비행시간 12시간 25분) 로마 국제공항 도착 호텔 투숙	
12.25(월) 2일차	로 마	전용버스	10:00 13:00 17:00 18:00	도시명소 운영실태 시찰(콜로세움 등) 이탈리아 한인회 및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로마 시청사 시찰 호텔 투숙	
12.26(화) 3일차	피렌체	전용버스	10:00 14:00 18:00	이동(로마→피렌체) 도시재생 사례(피렌체, 마리아성당 등) 탐방 호텔 투숙	
12.27(수) 4일차	피렌체 베니스	전용버스	08:00 14:00 16:00 18:00	이동(피렌체→피사) 세계문화유산(피사, 두오모 등) 방문 이동(피사→베니스) 호텔 투숙	
12.28(목) 5일차	베니스 밀라노	전용버스	09:00 10:00 14:00 18:00	세계문화유산(베니스, 산마르코 광장 등) 시찰 베니스 시청사 시찰 이동(베니스→밀라노) 밀라노 문화 체험 및 호텔 투숙	
12.29(금) 6일차	루제른 인터라켄	전용버스	08:00 14:00 16:30 17:30	이동(밀라노→루제른) 도심 명소 운영실태 시찰(루제른 호수, 카펠교 등) 이동(루제른→인터라켄) 호텔 투숙	
12.30(토) 7일차	인터라켄 취리히	전용버스	10:00 14:00 16:00 21:30	자연유산 및 관광자원 시찰(알프스) 이동(인터라켄→취리히) 취리히 시청사 시찰 취리히 출발(비행시간 10시간 45분)	
12.31(일) 8일차	인천		16:15	인천 국제공항 도착	

Ⅲ 연수자 명단 - 총 24명

○ 위원장 11명, 수행원 13명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직 위	비 고
			한글	영문		
1	부 산	담 당	윤상오	YOON SANG OH		
2	대 구	위원장	김재관	KIM JEKWAN	부회장	
3		수석전문위원	박재봉	PARK JAIBOONG		
4		주무관	김병채	KIM BYUNGCHAE		
5	인 천	위원장	공병건	GONG BEONG KUN	사무총장	
6		주무관	범기원	BUM KEEWON		
7	대 전	위원장	김종천	KIM JONGCHEON		
8		담 당	유희광	YU HEE KWANG		
9	울 산	위원장	정치락	JUNG CHI RAK		
10		주무관	안문기	AHN MOONKI		
11	세 종	위원장	김선무	KIM SUNMOO		
12	강 원	위원장	오세봉	OH SEBONG		
13		담 당	윤창호	YUN CHANGHO		
14	충 남	위원장	김중문	KIM JONGMOON	부회장	
15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ROH GWANGVIN		
16	전 남	위원장	박철홍	PARK CHULHONG	수석부회장	
17	경 북	위원장	김봉교	KIM BONG KYO	공동회장	
18		수석전문위원	이 만	LEE MAN		
19		주무관	신부철	SHIN BUCHEOL		
20	경 남	위원장	천영기	CHUN YOUNGEE	정책위원장	
21	제 주	위원장	김태석	KIM TAESUK	공동회장	
22		담 당	이창민	LEE CHANG MIN		
23		주무관	현동윤	HYUN DONGYUN		
24		주무관	김태현	KIM TAEHEON		

Ⅳ 국가별 특징

1 이탈리아(ITALY)



■ 일반현황

- 수도 : 로마(Rome)
- 면적 : 301,340km²(한반도의 약 1.5배)
- 인구 : 6,213만(2017년)
- 언어 : 이탈리아어(Italian)
- 종교 : 카톨릭(90%이상)
- 기후 : 지중해성 기후
- 건국일 : 1946년 6월 2일 (이탈리아 공화국 선포)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
- 주요도시 : 로마, 밀라노, 나폴리, 제노바 등

■ 지 리

- 유럽대륙으로부터 지중해쪽으로 긴 장화 모양을 하고 있는 반도 국가인 이탈리아는 반도와 시칠리아섬, 사르데냐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지와 구릉이 많고 평야는 전 국토의 1/5정도 밖에 안된다.
- 지반이 불안정하여 지진이 잦으며, 시칠리아섬의 에트나산은 유럽 최고의 화산으로 화산운동을 하고 있는 분화구와 900여개가 넘는 기생화산을 보유하고 있다.

- 북쪽으로는 알프스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서쪽은 시칠리아·사르데냐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은 아드리아해에 면해 있다.

■ 기 후

- 이탈리아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우나, 북부지역은 아페니노 산맥의 영향으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여름의 평균 기온은 29℃, 겨울 평균 기온은 9℃ 정도로 온난하다.
- 강수량은 연평균 600~1,000mm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은편이고, 주로 가을에 많이 내리며, 여름에는 햇볕이 강렬하나 습도가 낮다.

■ 역 사

- 고대의 화려한 전통과 유물을 간직하며, 현대의 최첨단 패션과 유행을 잘 융합시키고 있으며, 대륙에서 지중해쪽으로 장화처럼 뻗어나와 있다.
-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운 곳으로 줄리어스 시저 등이 활약한데 이어 BC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왕위에 오른 것으로 시작된 로마 제국은 그 뒤 아프리카 북부는 물론, 중동과 영국에까지 손을 뻗치는 큰 제국을 이루었다.

- 4세기 말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세계 종교로 전파시켰고, 15세기에는 높아진 시민의식과 귀족들의 비호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으며, 5세기 서로마제국의 멸망이후 분열된 국토는 1861년에야 통일을 이뤘다.
-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승전국과 패전국의 자리에 서게 됐으며, 2차대전 뒤에는 자동차 공업, 패션 산업, 관광 등으로 경제를 재건하였으나, 공업이 발달해 부유한 북부 이탈리아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는 가난한 남부 이탈리아가 공존하고 있다.

■ 사회 / 문화

- 공용어는 이탈리아어이며 국경 주변에서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섞어 사용하는 곳도 있다.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관광지의 식당이나 상점, 호텔 등에서는 영어가 통용되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국교는 로마 카톨릭교도로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며, 결혼식, 장례식 등이 대부분 교회에서 행해진다.
- 지방별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지금도 각 도시별로 통일성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을 이동할 때마다 지역의 특색있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2 스위스(SWITZERLAND)



■ 일반현황

- 수도 : 베른(Bern)
- 면적 : 41,277km²(한반도의 약 1/5배)
- 인구 : 823만(2017년)
- 언어 : 독일어(German), 불어(French), 이탈리아어(Italian), 로망슈어(Romansh Language)
- 종교 : 가톨릭(41.8%), 개신교(35.3%), 무종교(11.1%), 이슬람교(4.3%)
- 건국일 : 1291년 8월 1일
- 정부형태 :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공화국 형태
- 국가원수 : Ms. Doris Leuthard
- 입법부 : 양원제, 칸톤 동수 대표로 구성된 상원 46명
칸톤 인구비례로 구성된 하원 200명
- 정당
 - 상원(46석) : 기독교 민주당(CVP, 13석), 사회민주당(SP, 12석), 자유민주당(FDP, 13석), 스위스국민당(SVP, 5석)
 - 하원(200석) : 스위스국민당(SVP, 65석), 사회민주당(SP, 43석), 자유민주당(FDP, 33석), 기독교민주당(CVP, 28석)
- 주요도시 : 취리히, 제네바, 로잔, 루체른 등

■ 지 리

- 면적은 남한의 반정도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등의 국경과 접해 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

대로 북서부에는 쥐라산맥, 그 옆으로는 제네바, 루체른, 취리히를 잇는 평평한 대지가 펼쳐진다.

- 알프스 산맥에는 몬테로사, 마티호른 등의 험준한 고봉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라인, 론, 다뉴브강의 발원이 되고 있다.

■ 기 후

- 사계절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온화한 기후이다. 여름에는 건조하여 견딜만한 날씨이지만, 최근에는 많이 더워지는 경향이 있다.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눈이 자주 오나 심한 추위는 없는 편이다.

■ 사회 / 문화

- 스위스는 4개국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으며 각 주마다 표준언어가 모두 다르다. 대다수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등에 능통한 편이다. 각 주에서 독일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영어와 프랑스어도 통하는 편이다.
-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독일, 프랑스, 이태리 문화가 혼합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국이 4개 언어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알프스 지역, 알프스 지류 지역, 중부지역 및 쥐라산맥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 지방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

V 주요 연수내용

1 이탈리아(ITARY)

■ 로마한인회 평창올림픽 거리홍보 캠페인

○ 개요

〈로마한인회 방문 및 평창동계올림픽 거리홍보 캠페인〉

○ 일 시 : 2017년 12월 25일 (월) 13:00 - 17:00

○ 참석자

1) 한 국 측 - 김태석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24명

2) 한인회측 - 이범대 로마/이태리 한인회장 등 10명

○ 주요내용 : 환영사 및 인사

오찬 및 기념품 전달

평창동계올림픽 거리홍보 캠페인 및 홍보물 전달

기념촬영

○ 관련사진(오찬 및 기념품 전달)



이범대 로마/이태리 한인회장 인사말씀



제주 김태석 운영위원장 기념품 전달



경북 김봉교 운영위원장 지역 특산물 전달



강원 오세봉 운영위원장 평창올림픽 홍보인형 전달

○ 관련사진(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거리 캠페인)



로마시내 거리 캠페인 (1)



로마시내 거리 캠페인 (2)



로마시내 거리 캠페인 (3)



로마시내 거리 캠페인 (4)

○ 관련사진(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홍보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바티칸 성당내 홍보 캠페인 (1)	바티칸 성당내 홍보 캠페인 (2)
	
바티칸 성당내 홍보 캠페인 (3)	바티칸 성당내 홍보 캠페인 (4)
	
바티칸 성당내 홍보 캠페인 (5)	바티칸 성당내 홍보 캠페인 (6)

■ 로마 시청사 시찰 및 관광인프라 체험

○ 관련사진

	<p><로마시청사> 캄피돌리오 언덕은 고대로마의 가장 중심 부였던 언덕으로 16세기 미켈란젤로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잡았고, 언덕 정면에 보이는 세나토리오 궁은 현재 로마시청사 건물로 쓰이고 있다.</p>
	<p><전기충전시설 운영 사례>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30%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은 로마 시내 여러 도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p>
	<p><콜로세움> 로마의 상징이며 거대한 원형투기장 겸 극장으로 AD 80년에 완성하여 80개 정도가 되는 출구에 5만여명이 넘는 관객이 입장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고대 로마 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다.</p>
	<p><트레비분수> 교황 클레멘스 13세에 의해 분수 설계 공모 후 1762년 완성하였고, 바로크 양식의 마지막 작품이자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수라고 할 수 있다.</p>

■ 피사 및 피렌체 문화시설 탐방

○ 관련사진



<피사>

이탈리아 피사시(市)의 피사 대성당에 있는 종탑인 피사의 사탑은 착공 당시 토질의 불균형으로 현재 5.5°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낙하실험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도시경관 개선 사례>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돌출간판 대신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그림이 건물과 잘 어울리고, 매장내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듯한 간판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프레스코화로 유명한 성당으로 미켈란젤로 등에 의해 1278년 착공하여 1300~1350년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의 외관은 바실리카풍으로, 명쾌하고 정돈된 공간을 자아내고 있다.



<피렌체 시청사>

시노리아 광장은 피렌체 시민이 참여하는 공화정치를 하던 중심지로 광장 내 베키오 궁전은 현재 피렌체 시청사로 쓰이고 있으며, 청사 건물 앞에는 미켈란젤로의 동상 다비드상과 페르세우스 청동상 등 걸작을 볼 수 있다.

■ 베니스 및 밀라노 문화시설 탐방

○ 관련사진



<베니스 총독관저>

베네치아 공화국 총독관저였던 두칼레 궁전은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관은 흰색과 분홍색 대리석으로 꾸며 산뜻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며, 내부에는 평의회, 원로원, 재판소, 감옥, 접견실, 투표실 등이 있다.



<산마르코 광장>

산마르코 광장은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조성되어 현재의 홀 같은 공간에 구청사와 시청사, 시계탑, 박물관 등이 있으며, 주변에는 플로리안(Florian)과 같은 유명한 카페와 명품을 파는 고급 상점들이 즐비해 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고딕양식의 성당으로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대성당으로 전체가 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우아하고 장엄한 느낌을 준다.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

이탈리아 패션의 중심지인 밀라노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에는 프라다, 베르사체, 루이비통 등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매장이 밀집해 있다. 세련된 감각과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한 인파로 늘 붐비는 지역이다.

2 스위스(SWITZER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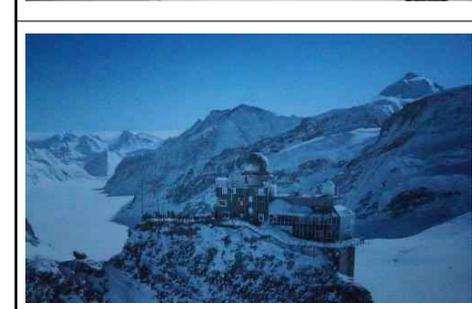
루제른 및 취리히 문화시설 탐방

○ 관련사진

	<p><친환경 교통수단 사례> 친환경·저비용 교통수단인 트램은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의 400여개 노선에서 달리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여 환경오염이 적고, 지하철이나 고가철로의 경전철과 달리 건설비도 적게 들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p>
	<p><루제른 호수, 카펠교> 루제른은 호수의 도시인 만큼 큰 호수와 특히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1333년)인 카펠교를 볼 수 있다. 다리 내부에는 17세기 화가 하인리히 뵘크만이 루제른의 역사를 널빤지에 그려 장식한 것으로 유명하다.</p>
	<p><빈사의 사자상> 1792년 프랑스 혁명 당시 뢰리리공원에서 사망한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는 기념비로 사자가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묘사됐으며, 전사한 스위스병사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전부 새겨져 있어 슬프고도 감동적인 바위로 알려져 있다.</p>
	<p><취리히 시청사> 스위스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인 취리히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이 시청사는 1694년 건축된 바로크양식의 건물로 라트하우스 다리를 건너서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관광객이 자주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p>

융프라우 자연환경 활용 시찰

○ 관련사진

	<p><관광객 편의 제공 사례> 융프라우 등산은 산악열차를 이용하는데 톱니바퀴로 기차를 운행하여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친환경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철도 기념 여권, 초코렛 제공 등은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좋은 사례로 판단된다.</p>
	<p><자연재난 대책 사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인위적인 재난시설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례로, 눈사태 방지를 위해 곳곳에 친환경 펜스를 설치하여 자연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스위스인의 인식을 느낄 수 있었다.</p>
	<p><얼음궁전> 얼음궁전은 1934년 빙하속을 쏘아서 만들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얼음조각과 통로로 연결되었으며, 독수리, 펭귄, 로마시대 황아리 등의 얼음조각은 동굴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탄생시켰다.</p>
	<p><스핑크스 전망대> 유럽의 지붕인 융프라우는 해발 3,454m로 눈덮인 산봉우리와 빙하들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스텝스 전망대를 통해 융프라우의 웅장한 자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p>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국외 연수 과정을 통하여 시·도의회 공동이해 사안 및 의견을 보다 현실적인 안목으로 수렴할 수 있었고, 선진국의 문화, 관광시설 등 운영 형태 등의 시찰을 통해 우리시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특히 국제적인 이벤트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로마한인회와의 거리 캠페인, 도시별 플래카드 가두 홍보 등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우리나라 및 대회를 알렸다는 점은 가장 큰 보람으로 느껴진다.
- 석조 문화가 발달한 유럽지역에서 예전의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증·개축에 많은 제한을 두고 철저히 억제하여 도시 전체가 세계적인 역사문화 유적지로 조성되는 모습에서 문화재를 아끼는 시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며, 우리시도 역사적 문화 시설을 관광 명소화 하게 위해 일관된 정책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느끼게 해줬다.
-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보다는 지역특색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또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예컨대 우리시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양적인 증가에만 주력하면 저가 관광국가 이미지 실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훑고 지나가는 패키지 여행보다 스스로 그 나라의 문화와 자연, 현지인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개별여행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콘텐츠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어떤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화 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장소 등을 관광 마케팅화 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